

이시와리 신사

이시와리 신사는 야마나카코 호수의 북쪽, 해발 1,413m 의 이시와리야마 산 하치고메(8 부 능선, 1,143m)에 서 있습니다. 이시와리라는 이름은 이 신사 안쪽의 갈라진 틈(와리)이 있는 큰 바위(이시)에서 유래했습니다. 8 세기에 쓰여진 일본의 역사서 고지키(古事記)에 따르면 일본 신화에서 태양신으로 여겨지는 아마테라스오미카미가 과거 잠시 동굴에 들어가 칩거했을 때 세상이 완전히 어두워졌다고 합니다. 이 지역에서는 아마테라스오미카미가 동굴 입구를 막는 데 이 큰 바위를 사용했다고 전해집니다.

이 큰 바위에 난 틈을 세 번 빠져나가면 행운이 찾아오지만 틈을 빠져나가기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바위가 알아차리면 틈이 완전히 닫힌다고 합니다. 이 전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403 단의 계단을 올라 신사까지 찾아가야 합니다. 이시와리야마 하이킹 코스 입구의 버스 정류장과 등산로 주차장 근처의 도리이를 지나면 이 계단이 시작됩니다.

이시와리야마 산 등산로 하이킹

수목이 울창하게 우거져 있지 않은 이시와리야마 산 정상에서는 정면으로는 후지산과 히라오야마 산, 좌측으로는 저멀리 남알프스까지 아름다운 전망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. 주차장에서 이시와리야마 산 정상까지 올라간 후 히라오야마 산을 종주하고 다시 주차장으로 돌아오는 하이킹 코스는 약 3 시간이 소요됩니다.